

스마트 팜 관련 스크랩

2019. 4. 15. ~ 4. 21.

페이지	제목	비고	유형
2-3	상주 '스마트팜 토마토' 日 최고급 백화점 들어간다	경북신문	인터넷
4	경남도 스마트 축산으로 경쟁력 높인다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5-6	'지하철역 스마트팜' 재생모델로 눈길	문화일보	인터넷
7-8	아프리카 공무원, 한국 스마트팜서 혁신 배운다	뉴스핌	인터넷
9-10	청소년농생명센터, 8월까지 명예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뉴스1	인터넷
11-12	김혜연 엔씽 대표 "플랜티 큐브 2호 확장 출발선"	더벨	인터넷
13	(제주특별자치도-종합) 빅데이터 활용한 채소 최적 데이터 인프라 구축 착수	당진신문	인터넷
14	스마트팜·4차산업화 발맞춘 장비들 한자리	CSN 축산신문	인터넷
15-16	스마트팜과 ICT융복합 활용 교육 호응	청주일보	인터넷
17-18	[대동테크] 축산 스마트팜 전문기업으로 도약	한국 농기계신문	인터넷
19-22	(피플)박철웅 실용화재단 이사장 "스마트팜 패키지로 북방농업수출자리 창출 앞장"	뉴스토마토	인터넷
23-33	[2019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④대전·세종·충남·충북	매일경제	인터넷

상주 '스마트팜 토마토' 日 최고급 백화점 들어간다

농업회사법인 '새봄', 日에 직접
5.3톤물량 3천만 원 상당 수출
지역 새 수출품 공급확대 노력

황창현 기자 / h6360807@hanmail.net | 입력 : 2019년 04월 18일



상주의 농업회사법인 새봄(대표 조영호)은 지난 17일 오전 9시에 상주 유리온실에서 재배된 토마토를 수출했다.

안전성 및 품질을 인정을 받아 작년에는 8월 하반기부터 매주 꾸준히 일본으로 수출해 100톤 이상, 6억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선적된 “토마토”는 컨테이너 20피트(5.3톤 정도)로 금액은 3000만원 상당이며 매주 2번에 걸쳐서 10톤 이상의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다.

새봄은 국내 수출업체를 통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새봄에서 직접 일본 청과 전문 수입업체를 통하여 최고급 백화점(이세탄, 미스코시, 다카시 마야)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현재 새봄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은 45,000㎡로 36톤 가량의 방울토마토를 매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양의 토마토가 수출 될 전망이다.

올해 새봄 수출실적 목표 금액은 40억원 이상으로 상주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상주시 윤해성 유통마케팅과장은 “상주시의 새로운 주력 수출품인 유리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가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길 당부하였으며 공급 확대 및 품질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황창연 기자 / h5350807@hanmail.net | 입력 : 2019년 04월 18일

- Copyrights ©경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남도 스마트 축산으로 경쟁력 높인다

☞ 배병일기자 | ☉ 승인 2019.04.15 18:50 | 📄 11면 | 💬 댓글 0

축산분야 ICT 사업비 75억원 확보·1차 46억원 지원
잔여 사업비 29억원 매월 25일까지 추가 접수 시행



경남도는 2019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75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9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사업은 1차로 예비신청 45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최종 31농가(한우 14, 낙농 2, 양돈 15)에 46억원의 지원 사업비를 확정했다.

또한, 29억원의 잔여 사업비는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25일 기한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현대화된 축사시설에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가축 사양관리 등에 ICT 장비를 적용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시설의 신규 구비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가 신청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농가이며, 농가당 신청 사업비는 최대 15억원이며 재원은 국비보조 30%, 국비용자 50%, 자담 20%로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지하철역 스마트팜’ 재생모델로 눈길



서울교통공사, 일부 역내 설치 '이동식 ICT 팜' 상추 등 재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17일 인천항 제8부두에서 개막한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일부 역내에 설치 중인 '스마트 팜'을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 눈길을 끌었다. 도시농업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도심 지하철역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교통공사는 전시관에 5호선 답십리역 공실 부지와 7호선 상도역 만남의 광장에 설치 중인 '이동식 ICT 프레시 팜'(사진)을 선보였다. 지하철역 내 잔여 공간을 먹거리 생산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획기적 사업이다. 프레시팜 내부엔 버터헤드 상추와 샐러드용 야채인 카이피라 등 식용 작물들이 보관돼 있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재배 시설의 온도와 습도, 광도,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장치 구동을 통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농촌에서 재배한 작물의 품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지하에 있지만 인공광을 활용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으로 데이터 기반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공사는 이달 중으로 설비 설치를 마무리한 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첨단 도시농업의 기회를 도심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하철역과 융합한 스마트팜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아프리카 공무원, 한국 스마트팜서 혁신 배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아프리카 4개국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실시
포항제철소, 부산항만공사, 새만금홍보관 등도 견학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9:21

가 +

가 -

프린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14일부터 5월4일 까지 아프리카 4개국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지방행정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네갈 1명, 카메룬명, 코트디부아르 5명, DR콩고 5명 등이 참가 대상이다.

자치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지난 2017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3개년도 초청연수사업을 시작해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우간다, 탄자니아, 이집트 등 단일국가 과정도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아프리카 다국가 연수과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해 지역개발과 정부혁신을 주제로 아프리카 지역의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행정의 투명성 확보 전략, 경제개발과 인프라 정책, 한국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전략 등 지방행정 발전방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지역균형개발 사례와 새마을운동 세계화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항제철소, 부산항만공사, 새만금홍보관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4개국은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농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농업 및 항만개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 비율은 세네갈 17%, 코트디부아르 20%, DR콩고 46%, 카메룬 23%에 달한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배치도 [사진=고흥군]

아프리카 교육생들은 완주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진흥청, 농식품인력개발원을 방문해 최첨단 영농기술과 스마트 팜을 견학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해 우리 기술로 설계.완공된 세계 최장(33.9km)의 새만금 방조제 및 시설현황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청취하고 시설 현장도 견학하게 된다.

한편, 세네갈 등 아프리카 4개국은 한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컴퓨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향후 제품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재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경험이 아프리카로 확산되어 참가국의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청소년농생명센터, 8월까지 명예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2019-04-15 12:03 송고

기사보기



국립 청소년농생명센터가 부안하서중학교에서 명예 스마트팜 전문가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국립 청소년농생명센터는 농산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작물재배시스템을 활용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명예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하서중학교 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프로젝트 중심 교육(PBL:Project Based Learning)을 통한 자기주도적 활동의 참여기회 확대와 더불어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은 8월까지 총 3차 활동에 걸쳐 다양한 과학탐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 작물재배기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수경재배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며, 프로젝트의 마지막 활동으로 변화하는 농작물 재배시스템의 다양한 활용법과 이해를 위해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 등 선진 스마트팜 견학도 진행한다.

양해관 농생명센터 원장은 "농생명의 고유한 가치 전달과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 충족과 함께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연 엔씽 대표 "'플랜티 큐브 2호' 확장 출발선"

UAE 아부다비 등 해외 진출 추진, 추가 투자유치 논의

김대영 기자 | 공개 2019-04-16 08:04:20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5일 15:5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씽(n.thing)'이 차세대 스마트팜(Smart Farm) 플랜티 큐브(PLANTY CUBE)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해외 진출을 목표로 추가 투자유치를 고려하는 등 사업기반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서울 강남구 엔씽 사무실에서 만난 김혜연 대표 (사진)는 "엔씽의 매출은 오는 6월부터 가동될 플랜티 큐브 2호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며 "플랜티 큐브 2호를 시작으로 더 많은 스마트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씽은 지난 2014년 1월 김 대표가 설립한 IoT 모듈형 수직농장 스타트업이다. 30가지 식물의 재배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격 식물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화분 플랜티를 개발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플랜티 큐브 1호를 준공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다.

이번에 준공될 플랜티 큐브는 엔씽의 2호 스마트팜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24동 규모의 2층 적층 구조로 설치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 안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플랜티 큐브 1호가 테스트베드용 성격이었다면 2호는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플랜티큐브 2호가 엔씽의 본격적인 사업확장을 위한 출발점인 셈이다.

플랜티 큐브 1호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가 그대로 2호에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플랜티 큐브는 국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아닌 해외의 작물을 주로 키운다. IoT 센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배 환경 데이터를 축적해 최적의 작물 재배 레시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번 공장이 완공될 시 엔씽은 연 30톤 이상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그간 축적한 데이터를 플랜티 큐브 2호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상급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국내외 식품 관련 기업들과 작물 판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엔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기후 등의 이유로 채소를 직접 재배할 수 없는 중동 지역이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국내의 모기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시험용 플랜티 큐브 5동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추가 투자유치도 계획 중이다. 엔씽은 지난해 12월 스프링캠프와 유큐아이파트너스, 티비티 및 개인투자자로부터 약 25억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 설립 이후 누적 투자유치금은 40억원정도다.

엔씽은 시리즈 A 유치 이후 아직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해외 진출을 위해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 시리즈B 단계의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기존에 투자했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몇몇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이 새롭게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엔씽을 시작할 때부터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었다"며 "2020년 내로 중동,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 플랜티 큐브를 세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HOME > 라이프 > 사회/일반

(제주특별자치도-종합) 빅데이터 활용한 채소 최적 데이터 인프라 구축 착수

김상호 기자 | 승인 2019.04.15 18:19 | 댓글 0

[온라인뉴스팀] ICT 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내 채소 수확량 예측, 수확시기 조절 등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을 위한 최적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마늘, 양파, 딸기, 파프리카 등 4작목 대상으로 파종부터 출하까지 전주기 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현장활용 연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의 품목별, 유형별 모델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온도, 습도, 양분농도 등 환경데이터는 ICT융복합 기술로 자동수집 되지만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에 핵심인 작물 생육, 수량, 품질 등은 수동 측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채소 빅데이터 수집, 관리,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수확량 예측 및 시기 조절 등 생산수익 데이터 인프라 구축으로 최적화된 농가수익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1단계 2019년에는 4작목 생산성과 관련된 환경·생육·경영 요인을 수집하고 △2단계 2020년에는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한 농가 컨설팅 △3단계 2021년에는 개발된 데이터 모델을 현장 적용을 거쳐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마늘, 양파, 딸기, 파프리카 등 4작목 9농가를 대상으로 주 1회 농가 현장방문하여 생육조사, 환경자료, 경영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온도, 습도, 일사량, CO₂, EC 등 환경요인 △초장, 잎폭, 잎수, 생장길이, 당도 등 생육요인 △생산량, 총수입, 판매단가, 투입비 등 경영요인 3요인으로 나눠 빅데이터 수집에 나선다.

수집된 농가별 빅데이터는 내외부 전문가 분석을 거쳐 농가 현장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용세 농업연구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보급으로 농가 생산성 증대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팜·4차산업화 발맞춘 장비들 한자리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 4일간 성황 이뤄
217개사 393개 기종 전시...18만 여명 발길

박윤만 qkrdbaks@hanmail.net | 등록 2019.04.17 11:20:22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과 상주시(시장 황천모)가 공동 주최한 올해 상주농업기계박람회<사진>가 지난 2~5일 경북 상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됐다.

2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전우현 경북도 행정부지사, 앤드류 빌라코르타(Andrew Villacorta) 필리핀 농업부 차관보, 이승기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장, 전대식 김제시 부시장, 정종훈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 박철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등 내·외빈과 상주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총 1만8천760㎡ 면적에 스마트팜·4차산업 연계 농기자재, 수도작기계, 밭농업기계, 축산기자재, 수확·가공기자재, 시설농업기자재 등 217개사 393개 기종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4만3천491건 상담과 92억1천700만원 구매계약 실적을 거뒀다.

특히 박람회 기간동안 총 18만34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김신길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박람회가 농업인에게는 농작업의 편리성과 정밀·첨단농업을 도입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업체에게는 수요자와의 만남을 통해 기술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 산업발전에 기여한 (주)벡터전자 이사 손사관, (주)뉴런모터스 대표 조미영, 한반도산업 대표 최상억, 해청기계 대표 최상영에게 농기계 유공자 상이 돌아갔다.



스마트팜과 ICT 융복합 활용 교육 호응

스마트팜 야간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소득 확대

박창서 | 승인 2019.04.16



▲ 【충북·세종=청주일보】 2019년 스마트팜과 ICT 융복합 활용 교육.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5일 오후 7시, 스마트팜과 ICT 융복합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권대영 스마트 농업 전문 강사를 초빙해 스마트팜과 ICT융복합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시설재배 농가들과 농업시설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관심 농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마트팜이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해 재배하는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을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농장을 뜻한다.

사람의 감각이 아닌 정밀분석 장치로 시설 환경을 분석하고 분석데이터에 맞게 환경을 제어하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작물 생산에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이번 교육으로 시설재배농가들의 스마트팜 구성 기본 지식과 ICT장비 활용 전문 능력을 높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증대 기여에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 모두가 스마트 전문농업 지식을 갖춘 창조적 핵심 농업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개발팀 (☎201-38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서 elccid1@gmail.com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동테크] 축산 스마트팜 전문기업으로 도약

이세한 기자 | 승인 2019.04.15 09:32 | 댓글 0

| 축우발정감지시스템개발



DDK-HeatCall

대동테크가 혁신적인 축우발정감지시스템을 출시하며 축산 스마트팜 전문 기업으로 도약했다.

대동테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측장TMR배합기를 선보이며 축산업계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동시에 사용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번 신제품도 지난 제품과 같이 혁신이 담긴 제품으로 탄생했다. 신제품 'DDK-HeatCall'은 가속도와 기울기 센서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활동량을 체크해 승가검출이 가능하다. 수정 적기를 예측해 공태일수를 관리함으로써 수태율을 개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이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승가검출 시 사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을 갖췄다.

여기까지는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 하지만 대동테크는 여기에 혁신을 더했다. 수명이 한정적이었던 기존 제품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오재욱 팀장은 “이번 신제품은 일반 배터리를 사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경구 투입 제품이나 타 제품의 경우 1회용이지만 DDK-HeatCall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1회 교체 시 약 3년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의 잔량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즉시 교체가 가능하다.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현했지만 내구성은 기존 비교체 제품과 동일하게 개발했다. 오 팀장은 “직접 물에 넣고 시험하는 등 내구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5년간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에 전념했다”고 말했다.

신제품은 공인시험기관인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을 통해 평균 발정 감지율 92.45%를 인정받았다. 이는 해외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품 성능도 입증한 것이다.

특히 외산제품과는 다르게 국내 제작으로 신속한 A/S가능하다는 것은 강점이다. 매일 가임기 소의 활동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소의 특성을 분석해 사용자가 직접 승가 기준값을 수정할 수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이다.

제품은 제어용 PC, CCTV, 목걸이 송신기 20개를 한 세트로 구성해 공급된다.

오 팀장은 “대동테크의 기술연구소는 지금도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이득을 위해 스마트팜 등 다양한 제품 개발·보급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플)박철웅 실용화재단 이사장 "스마트팜 패키지로 북방농업수출과 일자리 창출 앞장"

올해 카자흐스탄 1640만달러 수출계약...인도 진출도 타진
"농업창업 성공률 100% 달성하고, 종자 인프라 완성하고자"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취임 100일을 갓 넘긴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조만간 카자흐스탄으로 떠난다. 스마트팜 설비와 농자재, 품종을 하나로 묶은 '스마트팜 패키지'를 지난달 340만달러 수출했는데, 이달에 또 13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다.

실용화재단이 북방농업수출 선두에 서있다. 농업분야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판로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한국 제품의 품질이 네덜란드·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 유사하지만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올해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시장을 넓히겠다는 박철웅 이사장의 비전을 들어봤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전북 익산 재단 이사장 집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농업 벤처창업 성공률 100%를 달성하고, 종자 인프라를 완성한 미시장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실용화재단

금산군은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사업, 귀농귀촌 대학 운영, 귀농 교육센터 운영,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등 귀농인과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류형 귀농 교육센터가 가장 큰 장점이다.

귀농 교육센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20여 가구가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1년간 체류하면서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한 세대에 330m² 규모 텃밭을 제공해 각종 작물을 키우며 정착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6천600m² 규모의 공동농장을 통해 농사일을 배울 수 있다.

또 금산지역 베테랑 농민들과 1대 1로 연결해 농사일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한 점도 금산군 귀농 정책의 장점이다.

손영철 금산군 귀농 교육팀장은 "정착 지역과 작목을 탐색할 수 있는 '귀농 원스톱 정착 지원 시스템'이야말로 금산군 귀농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 충남 보령시

보령시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능한 젊은 인재의 농업·농촌 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과 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 정책과 영농 기초기술 지원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현장실습교육, 농업대학 운영 등이 있다.

스마트팜, 6차 산업화, 농촌관광, 곤충산업 확대 등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문인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문 상담원, 작목 지도사, 선배 귀농인을 한 팀으로 구성해 귀농·귀농 종합정보 안내와 상담, 지역 소득작목 재배 현황 등 영농 관련 상담,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을 지원한다.

양송이버섯, 황토 고구마, 방풍나물, 스테비아, 머드제품 등 지역 농·특산품과 6차 가공품도 소개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역할이 궁금하다.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우수한 농업기술을 농민들이 이해하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농민청의 우수한 기술이 농업 전반에 쉽게 쓰이도록 하고,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농민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자를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농민청에서 해마다 200개의 종자를 연구·개발 하는데 이중 절반가량을 직접 생산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벤처창업도 육성한다. 농업생명 벤처창업에 대한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부터 성장과정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실용화재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계획은.

요즘 일자리 문제가 커지면서 젊은이들이 취업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업분야에서 상당한 힘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재단은 농식품벤처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농식품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업자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판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에 50억원 예산으로 150개 업체를 선정해 농업생명 벤처창업을 키웠는데 올해는 예비창업자 110명을 추가로 모집해 총 250개 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이다. 때문에 관련 예산을 90억원으로 늘렸다. 농업창업 업체는 규모가 작은 곳은 부부가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 큰 곳은 20명 정도다. 5년 정도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데 이를 통해 작년에만 71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올해는 850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의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우수사례가 있다면.

충북 진천의 '참선진녹즙'을 예로 들고 싶다. 참선진녹즙 이재현 대표는 새싹보리녹즙을 개발해 진천지역에서 유통하고 있다. 보리는 보통 벼를 수확한 다음 11월에 농사를 짓는다. 보리를 농사해 돈 버는 것을 10이라고 본다면 이 대표는 30~40을 벌고 있다. 이는 보리가 자라면서 싹이 올라오는데 15센치미터 정도 됐을 때 영양분이 가장 좋다. 이 대표는 바로 이때 베어서 말려 사과나 배 즙 등을 섞어 녹즙으로 판매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우유 배달처럼 아침마다 배달하는데 간 회복과 숙취, 고혈압, 골다공증에 좋다는 효능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실제 이 회사는 2015년 기술이전을 받은 후 매출이 2016년 2억7000만원에서 작년 6억4000만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도 2016년 27명에서 올해 4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잡은 성공적인 사례다.

올해부터 실용화지원사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며 기대되는 성과는.

재단은 특허창출부터 시제품제작, 제품공정 개선을 거쳐 판로개척·수출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농산업체의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약 814개 과제에 523억원을 지원했다. 재단이 농산업체가 농식품 분야 기술사업화를 이루는데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원 제품 매출액은 총 972억원에 달하고 신규일자리도 1373명을 만들었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우수한 업체가 더욱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한다. 특히 싹수가 보이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도도 기존 8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늘릴 것이다. 우리 농식품 기업이 만든 기술과 제품이 사업화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한다면 농산업체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용화재단은 전주 한옥마을에 농식품 벤처·창업제품 판매관을 10일 열었다. 마켓 영농하게는 2016년 서울 1호점(at센터), 2호점(부산 국제시장 609청년몰)에 이어 이번 3호점(전주 한옥마을)을 개설하게 됐다. 박철웅 이사장은 매장을 둘러보며 "마켓 영농하게가 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실용화재단

최근 스마트팜 패키지를 카자흐스탄에 수출계약 했다. 농업수출 확대 방안과 세부내용은.

오는 22일 한국기업과 재단, 현지업체간 3자 수출계약을 맺으러 카자흐스탄으로 떠난다. 지난달 340만달러 수출계약을 완료했는데, 이번에 1300만달러 규모의 추가계약을 단 것이다. 스마트팜 패키지는 스마트팜 설비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농자재와 품종을 하나로 묶은 것을 말한다. 최근 정부가 신북방지역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재단도 농업수출 선두에서 수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유라시아의 관문 카자흐스탄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시장까지 진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카자흐스탄 수출계약에 성공한 스마트팜 설비는 농진청에서 연구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첫 수출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북방지역의 시설재배 설비 시장은 네덜란드 제품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이 시운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잡았다. 한국 제품의 성능이 네덜란드만큼 높지만 가격경쟁력이 70%정도인 점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게다가 스마트팜패키지는 일자리 양성까지 이어진다. 패키지인 만큼 기술 전수가 필수적인데 젊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국내 일자리 시장이 포화상태인 만큼 청년들로 하여금 해외로 눈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경험도 쌓을 수 있다. 패키지 수출 관련 농업분야가 잘 이뤄진다면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분야 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다고 본다. 올해 인도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100일을 맞았다. 농진청에서 40년간 공직생활을 한 농업전문가인데 앞으로 비전을 실현하고 싶은가. 또 어떤 이사장으로 평가받고 싶은지.

재단은 농진청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과 신품종을 일선 수요자들이 빠르게 받아 그것을 기초로 농사가 잘되게 하고, 돈을 잘 벌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와 사명이다. 그간 종자관련 인프라가 부족했는데 앞으로 2~3년 내 3000톤을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벼는 3년에 한번씩 신품종을 갈아줘야 건강하다. 임기내 관련시설 구축완성으로 언제든 보관하고 있다가 농가가 필요할 때 줄 수 있도록 종자 인프라를 완성한 이사장으로 남고 싶다. 또 농산업을 희망하는 벤처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관련정보를 제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현재 춘천과 서울, 세종 등 5개 벤처센터가 운영 중인데 올해 부산과 수원엔 센터를 추가할 것이다. 창업 성공률이 40% 수준이지만 향후 재단의 전문기술과 후원을 더 활성화 해 성공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싶다.

익산=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2019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④대전·세종·충남·충북

입력 : 2019.04.16 10:01:19

충남지역은 2017년 기준 도내 수도권 유입 귀농귀촌 인구가 2만1천4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체 귀촌과 귀농 인구는 각각 4만8천772명, 1천405명으로 전국 4위에 머물러 있지만, 수도권 출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베이비 부머와 도시 농부 등에 인기를 끌고 있다.

도는 '귀농귀촌을 통한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조성'을 목표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다. 찾아가는 귀농 교육, 맞춤형 종합상담 귀농 지원센터,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자금 융자 등 제도를 소개한다.

특히 도시 청년 농업농촌 캠프, 초보 농부 실천농장,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귀농 준비 기간 주거 공간 해결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촌인 재능기부 등 정책도 알릴 계획이다.

서동철 충남도 귀농 지원팀장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계층별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 금산군

인삼의 고장으로 유명한 금산군은 접근성이 좋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귀농귀촌의 적격지로 꼽힌다.

인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초와 깻잎 재배로도 유명하다.

배진이 보령시 귀농 지원팀장은 "보령 농특산품 소개, 체계적인 영농정착 지원 안내 등을 통해 도시민들이 보령에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충남 서산시

서산은 수도권과 대전권에서 1~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귀농귀촌 최적지로, 시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기술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5년 이내 귀농인과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 농업기술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귀농귀촌 정착 사례를 공유하면서 토론과 견학 등을 통해 현장감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영농교육을 지원하는 등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정보 교류와 공유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데 주력한다.

시에서는 이번 박람회 기간 귀농 지원센터 상담 요원과 서산 귀농귀촌협회 회원이 참가해 각종 귀농·귀촌 지원시책과 성공사례를 생동감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소철 서산시 귀농귀촌 담당 주무관은 "귀농 관련 정책지원, 도시민 농촌 정착 및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충남 서천군

금강 하구와 유부도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생태 도시라 불리는 서천군은 '행복 서천 인구 늘리기, 귀농하기 좋은 1번지'를 목표로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정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귀농 정착의 기본이 되는 영농활동에 대한 상담과 함께 서천만의 차별화된 이주단계별 원스톱 지원정책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선배 귀농인을 상담 요원으로 배치, 맞춤형 컨설팅을 벌인다.

또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함께 귀농·귀촌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특산물을 함께 전시·홍보할 예정이어서 영농창업 관련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관 서천군 귀농귀촌 지원팀장은 "이번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귀농귀촌인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천군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군을 찾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귀농정책과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 충남 아산시

아산은 대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귀촌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 농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운양온천을 비롯해 외암마을, 현충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 다양한 문화생활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자체 시책인 농업인 농외소득 창출과 기반 조성, 도농 상생 협력기반 마련, 농어촌 복지 증진 정책 등을 설명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먼저 정착한 선배 귀농귀촌 협의회 회원들과 귀농 지원센터 상담사가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1대 1로 상담해 준다.

박승우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비 귀농인들은 아산시 홍보관에서 정착지 물색, 주택·농지 매입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살기 좋은 아산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 천안시

수도권의 배후이자 충남을 대표하는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천안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이다.

인구 68만의 대도시로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체험·직거래 등에 특화된 도시 근교 농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 도시 인구의 성장세에 맞춰 학교급식에 공급할 친환경 농산물, 로컬 푸드 생산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특산물인 배와 오이, 멜론, 거봉 포도, 호두 등 주요 작목에 대해 소개하고 편리한 교통망, 교육·문화 등 풍부한 인프라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농환경, 주요 작목, 사회적인 여건, 영농 정책, 지원 사항 등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1대 1 설명하고 영농 지식, 기술도 상세히 전수할 계획이다.

장효진 천안시 도시농업 팀장은 "천안에서 새롭게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도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 청양군

'충남의 알프스' 청양군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농·귀촌 과정 안내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군은 초보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술 교육을 하고,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귀농인 영농정착 창업스쿨 교육'을 개설해 내달부터 운영한다.

귀농귀촌 지원정책 과정을 원-스톱(one-stop) 시스템으로 단순화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청양군 귀농귀촌 협의회 임원들이 참가해 귀농귀촌 초기 어려운 점 등을 들려주고, 농촌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 등 삶의 장단점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안대환 청양군 귀농귀촌 팀장은 "교통과 접근성, 환경 등을 생각하면 청양이 귀농·귀촌의 최적지"라며 "도시민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청양군만의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시·군보다 인구 대비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다"며 "농촌에서 다시 일어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충남 태안군

태안군은 청장년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장년 창업 실습농장 사업'을 펴고 있다.

시설과 노지 포장,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교육 및 실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또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조성 사업', '젊은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하우스 시설, 농업용 창고,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신규 귀농인 유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 귀농귀촌 종합상담과 희망 작목별 심화 상담을 하고 유희 농지와 빈집 정보 등 주요 귀농귀촌 정보도 제공한다.

'귀농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선배 귀농인과 신규 귀농인 간 멘토링 체계를 구축, 영농창업을 돕고 있다.

이밖에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태안군 귀농학교', '귀농인의 집' 등으로 도시민에게 귀농정책과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한 태안군 귀농귀촌 팀장은 "정착을 원하는 귀농인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 설계비를 일부 지원하고 귀농 창업 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등 귀농인의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들을 박람회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남 홍성군

홍성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유기농업 특구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군은 서울시의 '도농 상생 공공급식 공모'에 선정돼 노원구에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고 도내 최대 규모의 양돈 단지가 있어 '충남의 귀농 1번지'라 불릴 정도로 귀농귀촌에 인기가 많다.

올해부터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창농에 관심이 있는 40세 이하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디딤돌 교육을 시행하고 훈련 농장에서 영농 인턴 등을 통해 귀농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청년들이 시설을 임대해 농장을 실제로 운영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생활안정자금', 지역 주민과 선배 귀농인의 체험담을 나누는 '농부 토크쇼'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윤길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홍성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가 있고 친환경 농업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귀농귀촌하기 좋은 지역"이라며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 괴산군

2015년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유기농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괴산군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청정 환경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귀농귀촌 도시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하여 소개할 계획이다.

도시 1년 이상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고 귀농 교육 100시간을 수료하면 3억원까지 농업창업 지원금을 융자해 준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주택 구매 융자금도 최대 7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두 연리 2%의 저금리다.

청년 귀농인 정착금(가구당 200만원)과 귀농 도우미(가구당 15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알릴 예정이다.

유재완 괴산군 귀농귀촌 지원팀장은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 때 전담 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괴산은 귀농귀촌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귀농귀촌하고 싶다면 괴산이 최적지"라고 말했다.

◇ 충북 단양군

귀농귀촌 1번지인 충북 단양은 소백산과 단양강(남한강의 단양지역 명칭)이 어우러진 단양팔경의 명승지다.

수도권에서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고 문화예술이 발달해 도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작년에는 714가구 991명의 도시민이 단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군은 귀농귀촌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2010년 충북 최초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을 통해 군은 귀농귀촌을 미리 설계해 보도록 '단양 느껴보기', 대기업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귀촌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농촌 생활을 단기간 경험하는 '귀농인의 집' 5곳도 세웠다. 올해 2곳을 추가한다.

군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주택 수리,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매, 전기·수도·인터넷 설치 지원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임행교 단양군 귀농귀촌 팀장은 "귀농귀촌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농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인생의 2모작을 단양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 보은군

속리산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보은군은 한해 1천명 이상의 도시민이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찾는 곳이다.

청주~상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고, 벼농사를 비롯해 사과·대추 등 과수 농업이 고루 발달해 있다.

2011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군은 농정과 안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귀농 상담에서부터 주택·농지 구매 지원, 영농계획 수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연속으로 뽑혀 한 해 2차례 '귀농귀촌 학교'를 여는 등 도시민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2명 이상 귀농 가구에 500만원의 정착자금과 농기계 구매 자금을 주고, 주택을 지을 때 100만원의 설계비도 제공한다.

이웃과 잘 어울리도록 집들이 비용(50만원)과 생활용품 구매비(20만원)도 별도로 준다.

김홍정 보은군 귀농귀촌 팀장은 "보은은 청주와 가까우면서도 땅값이 저렴해 은퇴 세대들이 정착하기 좋은 곳"이라며 "군청에 찾아오면 친절하게 귀농귀촌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 충북 영동군

영동군은 '국악과 과일의 고장'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계(蘭溪) 박연(朴堧)의 고향이면서 포도·복숭아·감·호두·블루베리 등 과일 농사가 발달해 있다.

충북도 와인 연구소와 와인 터널(왕복 480m)이 조성돼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42곳의 와이너리가 제각각 다른 맛의 특색 있는 포도주를 생산한다.

군은 이를 토대로 체험 관광농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해마다 난계국악축제와 와인 축제를 열고, 국악·와인을 결합한 테마 관광 열차도 운행한다.

금강 상류의 깨끗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어서 귀농귀촌인에게도 인기가 높다. 작년에만 1천600여명이 전원생활을 위해 들어왔다.

군은 이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한 해 3~4차례 선배 귀농인의 경험담을 듣고 농사를 배우는 '시골살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에서 이주한 지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농기계 구매비를 지원하고 과수 농사를 지을 경우 정착 자금과 저장시설 건립비, 주택 설계비도 준다.

김득환 영동군 귀농귀촌 담당 주무관은 "박람회 오면 다양한 귀농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충북 옥천군

지난해 옥천군에는 1천463가구, 2천213명의 귀농귀촌인이 들어왔다. 전체 인구(5만3천명)의 4.2%에 달하는 규모다.

이곳은 국토의 중심인 데다 대전에서 승용차로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다.

대도시 주변이어서 땅값이 다소 비싼 게 흠이지만, 그린벨트나 대청호 주변 등을 잘 찾아보면 때 묻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을 만끽할 공간이 많다.

군은 2010년 충북지역 최초로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정조직을 한 데 묶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귀농·창업 정보를 통합 지원한다.

빈집 구매 자금·농기계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고 농지·농촌주택 구매 시에도 취득·등록세를 보조해 준다.

성공한 선배 귀농인과의 1대 1 결연 멘토링 사업을 펼치고,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도 주선한다.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에 뽑혀 2021년까지 1억6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염종명 옥천군 귀농귀촌 팀장은 "박람회에서 우리 군의 차별화된 귀농 지원시책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강조했다.

◇ 충북 음성군

음성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농산물이 풍부한 곳이다.

청결 고추와 맹동면 수박, 감곡면 복숭아는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아 농산물 구매력이 높다는 점도 농업을 인생 2모작으로 삼으려는 귀농인들에게는 매력적이다.

음성군은 11곳의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귀농 창업 자금과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소형 농기계 지원, 농촌 정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귀농귀촌인을 돕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산품이 많고 대규모 화훼단지가 들어서 있어 귀농인들의 작목선택 폭이 넓고 선배 농업인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소개하기로 했다.

이의식 음성군 귀농귀촌 팀장은 "토양과 기후가 좋아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음성"이라며 "농업정보와 영농기술 교육 등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책이 다양해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은 청풍호와 월악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

천연물 원료 생산의 메카로 전국 최고의 한방자원 생산기지다.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재배도 활발하다. '하늘뜨레'라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도 있다.

전국 최초로 조성돼 4년째 운영 중인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역시 제천의 자랑이다.

이 센터는 귀농 예정 도시민을 대상으로 9개월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농촌을 이해하고 농사일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원시설이다.

시는 센터 홍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구 유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수정 제천시 귀농귀촌 팀장은 "제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이번 박람회 통해 귀농을 계획하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 증평군

농촌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증평군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1년까지 4억8천만원을 들여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로 했다.

세대원 2명 이하이면 200만원, 3명은 300만원, 4명 이상이면 4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준다.

귀농인들의 농산물 마케팅과 직거래 판매도 지원한다.

군은 '1읍 1면'의 초미니 도시라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농촌 생활을 하면서도 도시 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개관 4년 만에 누적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인 증평 군립도서관과 연간 100만명이 다녀가는 좌구산 휴양림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보강천변 등 빼어난 경관도 있다.

이동근 증평군 농정기획팀 주무관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농촌 생활과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증평의 매력"이라며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 충북 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국토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사통팔달의 고속 교통망을 갖춰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올해 충주시는 시설채소 청년 귀농 창업 예정자 7명을 선발했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를 멘토로 지정, 5개월간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교육생에게는 매달 80만원가량의 실습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소규모 창업시설보조금 1천만원과 귀농인 창업자금(융자)도 지원한다.

시는 2023년까지 50명의 시설채소 청년 귀농인을 육성, 지원할 예정이다.

임강식 충주시 귀농귀촌 팀장은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농업인 시설채소 현장실습교육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주시는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